

교제내용으로서의 정보의 몇가지 특성

안 정 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언어학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언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전집》 제32권 360페이지)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세계로부터 새로 얻게 되는 자료, 지식, 소식의 총체라고 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정보는 일반성과 전달성을 가진다.

우선 정보는 일반성을 가진다.

정보는 우주공간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수 있다. 객관세계의 모든 사물은 운동하고있으며 절대적으로 정지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물의 운동은 일정한 상태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방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사물의 운동상태와 방식도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운동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한 측면이고 운동방식은 사물운동의 한 측면이다. 객관적사물의 운동과 그 상태와 방식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것이라면 이런 상태, 방식과 그와 관련된 광범한 지식으로서의 정보 역시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정보의 이러한 일반성으로 하여 객관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정보를 내재하고있으며 그것을 누구나 다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는 전달성을 가진다.

정보는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모두 전달성을 가진다.

공간적견지에서 정보의 전달을 통신이라고 하며 시간적견지에서 정보의 전달을 정보저축이라고 한다.

교제정보의 작용과 정보의 전달은 갈라놓을수 없으며 정보의 전달이 없으면 정보의 작용도 없다.

교제정보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정보가 일정한 류동과정에 놓이게 되면서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정보는 교류, 전달되어야 그것이 가지고있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

교제정보의 전달은 에네르기원천이나 물자의 운반과는 다르다. 에네르기원천이나 물자는 운반도중에 손실이 없는 조건에서는 접수지에서 받는 수량과 같다. 동일한 수량의 에네르기와 물자를 받는 접수지가 많을수록 매 접수지에서 받게 되는 수량은 그에 맞게 감소되게 된다.

그러나 교제정보의 전달은 이와는 다르다. 정보원천지에서 정보를 보낸 다음 정보 그 자체는 감소되지 않으며 정보접수자도 정보를 모두 받을수 있게 된다.

정보는 여러 정보접수자에게 제공할수 있고 매 정보접수자는 같은 량의 정보를 얻을수 있으며 정보접수자가 증가되는데 따라 매 접수자가 받게 되는 정보량도 줄어들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정보는 공유성과 유용성을 가진다.

우선 정보는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정보의 공유성은 정보의 전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보는 물질(모체)에 의거해서 존재하지만 일반물질의 특성과는 다르다.

정보는 전달할수 있을뿐아니라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실례로 한사람이 일정한 지식(정보)을 가지고있고 다른 사람도 다른 일정한 지식(정보)을 가지고있을 때 두사람이 가지고있는 지식(정보)을 서로 교류한다면 두사람은 각각 두가지 지식(정보)을 가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각자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있는 정보와 서로 교류하여 얻은 정보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한사람의 연구성과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알게 되지만 연구성과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여전히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자로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정보를 전달할수 있을뿐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리용할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국 한명의 연구사나 연구집단이 몇년간의 곡절과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된 성과를 다른 사람은 정보를 통하여 며칠, 몇시간 심지어 몇십분동안이면 완전히 리해하고 습득하여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놓고보면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탐구하고 인식하며 개조하는 시간을 줄일수 있게 하며 많은 노력과 물자를 절약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정보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목적도 함께 리용하자는데 있으며 함께 리용하는 기초밑에서 정보를 리용하고 다시 창조한다. 그러므로 정보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동일한 정보로 하여금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복무할수 있게 한다.

또한 정보는 유용성을 가진다.

정보는 사람들의 활동에 필요한것이다.

사람들의 활동에 필요한것이라는것은 사람들이 정보를 리용하여 일정한 리익을 얻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정보는 《보이지 않는 재부》, 《특종의 자원》으로 불리우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응당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사람들의 활동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지식만이 정보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사람들이 일정한 정보를 리용하여 어떤 리득을 얻을것을 예상했으나 그 정보에 근거하여 활동을 진행한 결과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다.

실례로 한 경쟁자가 예측에 근거하여 한가지 행동방안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결국에는 경쟁대상자에게 패하여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가 얻은 예측결과와 행동방안이 정보가 아니라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실제적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간에 예측과 방안은 리용되었기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므로 응당 정보로 여겨야 한다.

실패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여러 측면으로 찾아볼수 있지만 종합해보면 두 측면 즉 방안실행중에 실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정보가 불완전하였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만일 전자가 원인이라면 물론 이것으로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불완전한 정보를 정보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보의 유용성은 사람들의 활동목적과 관계될뿐아니라 사람들의 활동대상과도 관계된다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는 기재성과 시효성을 가진다.

우선 정보는 반드시 일정한 적재물이나 매개물의 도움에 의하여 표현되게 되는데 이것을 정보의 기재성이라고 한다.

정보는 추상적인것이며 정보를 표현하는 적재물이나 매개물은 주로 부호이다. 부호는 정보의 적재물이며 정보는 부호가 담고있는 내용이다.

인류사회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부호로서는 주로 언어교제부호와 비언어교제부호가 있다.

또한 정보는 시효성을 가진다.

정보의 가치는 일정한 기한을 가지며 기한이 지나면 그 가치는 감소되거나 지어 상실되기까지 한다.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목적도 리용하자는데 있고 정보의 가치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창조하였는가 하는것을 더 많은 다른 수요자에게 전달해주어 새로운 성과를 창조하거나 더 많은 물질적부를 얻자는데 있다.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놓고볼 때 그들은 정보를 놓고 시간을 다툰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정보에 대한 시간적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정보의 기능과 작용, 가치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러한 성질은 정보의 시효성으로 된다. 정보를 얻고 가공하며 전달리용하는 전과정에서 시효성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정보의 시간적가치를 나타내며 정보의 경제적가치도 나타낸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시대의 경쟁을 본질에 있어서 정보의 경쟁이라고도 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정보는 개발성과 무한성을 가진다.

우선 정보는 개발성을 가진다.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과 지위, 지식수준에서의 차이로부터 그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쓸모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의 개발성이다.

사람의 로동의 산물인 정보는 자연계에서 발생하여 존재하면서 물질적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정신적산물을 제공하게 된다.

교제정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장성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창조의 불꽃을 지펴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더 새롭고 더욱 높은 단계, 더욱 넓은 영역을 개척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는 무한성을 가진다.

정보는 무한한 곳에서 발생하고 발전한다. 정보는 그 량이 일정하게 정해져있거나 끝이 있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서 수시로 정보가 발생된다고 할수 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운동과 변화에 따라 정보는 무한한 곳에서 발생되고 발전한다. 따라서 무한대한 전체 우주의 시공간속에서 발생하는 정보도 역시 무한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는 지체성을 가진다.

정보의 지체성은 정보전달에만 한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정보의 발생과 사건의 발생은 동시에 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 어느것이 앞서고 어느것이 뒤서는가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달수단이 아무리 선진적이고 전달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그 모든것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정보의 전달은 항상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으로 하여 시간상차이를 가지고있는데 이 시간적차이가 바로 정보의 지체성인것이다.

보도와 사건의 관계를 놓고볼 때 보도와 사건은 동시에 발생되는것 같지만 사실 보도는 사건의 발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연성이 있는것이다. 흔히 보게 되는 텔레비죤보도나 소리방송의 현지실황이나 현지방송 같은것도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후의 현상이다.

정보의 이러한 지체성은 강한 시효성을 가지고있는 정보의 전달과 교류에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효과성을 높이자면 정보의 지체성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 지체성을 극력 줄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교제정보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나라의 과학발전에 더욱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